

▲ 內藏山支部 7月18日 86년도 정기총회서

任員改選 人事來訪 = 고문 南杜熙 支部長 鞠采燁(新) 부지부장 鄭秉和(新), 劉基鍾(新) 운영위원 · 고광무(留), 오치식(留), 김용택(新)尹鍾燮(新), 양인섭(新), 감사 宋允玖(留), 사무국장 곽준길(留) 총會員이 40名으로 擴張.

▲ 北漢山서울特別市支部 6月1日 結成總會 =

支部長 權孝燮(本會理事 · 5月23日 結成 위촉) 부지부장 金仁植, 洪淳元 운영위원 · 崔錫模, 鄭元秀(本會企劃委員), 李貞夏, 尹璣, 金明洙 감사 權赫用 사무국장 趙庸植(기존회원2 신회원18)

▲ 北漢山京畿支部發起委員長 金斗圭會員 위촉

= 4月25日 現在 지부결성이 가능한 同參會員 20명 以上을 入會시켰으나 結成총회 일정을 미루고 있는데 곧 총회일정이 본회와 협의 될 듯.

▲ 周王山支部發起委員長 5月28日 李相龍會員

에 위촉 = 慶北 靑松출신 時調詩人이며 사진작가요 「國立公園 周王山」의 著者인 本會의 오랜 會員으로서 가람出版社 대표이다. 故鄕의 선배간에 周王山에 関한限 그에게 匹敵할 人物이 없다는 定評. 本人은 産婆役만 하겠다고.

▲ 瑞山海岸公園支部發起委員長 5月28日 鄭漆谷會員위촉

= 七甲산지부 소속회원이며 美協瑞山 支部長인 鄭희원이 7月19日 현재 瑞山海岸國立公園의 보존과 애호운동에 호응한 인사 24명의 입회를 완료, 본회와 일정협약이 끝나 8月9日 지부결성총회를 갖는다. 支部長은 애항심에 불타는 有志가 선출될 전망. (기존회원1 신회원24)

▲ 其他 = △ 俗離山國立공원 경북지부(尙州)

△ 伽倻山國立공원 경북지부(星州) △ 慶州國立공원지부(慶州) △ 金烏山도립공원지부(龜尾 · 善山) △ 八公산도립공원 대구직할시지부 · 경북지부 △ 無等산도립공원지부 △ 馬耳산도립공원지부 △ 南漢山城도립공원지부의 發起위원장 해당인물에게 本會加入을 권유했으며 會員이 되면 委囑할 예정.

△ 雪嶽山 국립공원지부발기는 朴烽宇회원(江原大林大綠地造景科助教授 · 農博)을 上申, 8月中 正式 委囑될 것이며.

△ 雉岳山國立공원지부발기는 原州의 尙志 大學(學長 朴在佑)과 교섭중인데 지난 4月 이후 協會에 대한 學界의 関심이 크게 伸張되고 있다.

會議

建設部公園專門

事業體 會議서

本會 附設自然公園研究所의 諮問利用 등 意見交換과 講論도

지난 6月25日 下午 建設部회의실서 열린 公園관계 專門技術用役事業者會議는 國立公園協會를 비롯 10個事業體代表者 및 重役이 參席, 앞으로의 效果的인 公園用役推進方向에 對하여 進지한 論議가 있었다. 이날 建設部側에서는 鄭淳虎國土計劃局長, 李碩壽自然公園課長, 孫鶴來技術係長이 出席하여 用役 中間報告와 隨時協議를 通해서 方向設定등 施行錯誤를 予防하고, 內實있는 用役이 되도록 諮問을 받으면서 實行토록 當부했다. 特히 本會議에서 國立公園協會 吳 事務局長은 諮問機關으로 設置된 國立公園協會附設自然公園研究所를 活用해주고 自然公園運動에 이바지하는 表象으로서 國立公園協會 團體會員이 되어주길 권유하여 贊意를 받았다.

參席者의 個人人事와 所感發表에 이어 國立公園協會 附設自然公園研究所本部 長으로 內定된바 있는 安元泰企劃委員의 「國立公園開發計劃 關聯參考事項」을 主題로 한 講論과 質疑應答이 있었다.

建設部當局이 앞으로의 公園用役事業의 誠實完遂를 위해 國立公園協會의 活性化와 專門事

業者에 對한 自然愛護精神함양 등 強力한 一連의 움직임은 오는 定期國會에서 다루어지게 될 自然公園法 改正案 15條 2項에 「公園計劃은 決定된 날로부터 10年 以內의 期間마다 與件變動에 따른 妥當性여부가 檢討되어야 한다」는條項이 都市計劃法의 경우처럼 처음으로 新設케 된 點과 管理公園의 設立과 함께 專門用役과 學術的 諮問의 增大傾向에 起因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本協會는 이에 對備하여 지난 4月부터 企劃委員會를 補強하는 한편 理事가운데 政府의 國立公園委員會를 兼한 人士를 中心으로한 專門委員會와 이미 內諾을 받아 있는 附設 自然公園研究所의 活性化를 서둘고 있다. 이날 참석한 전문용역사업체 및 단체는 다음과 같다.

- ▲ 한국국립공원협회 ▲ 한국경제사회연구원
- ▲ 韓國종합기술공사 ▲ 도화종합기술공사
- ▲ 동양종합기술공사 ▲ 유중엔지니어링
- ▲ 삼우기술단 ▲ 삼안기술공사 ▲ 정우엔지니어링

**本會 瑞山海岸 國立公園支部 結成
咸日成 支部長選任**

지난 8月9日 하오 5시30분 忠南 서산군 근흥면 안흥리 수려한 景觀이 조망되는 태평양회관에서 개최 되었다.

본부에서 文莊寅부회장 吳判龍사무국장 崔鎮燮연구원과 구한말의 大學者이며 항일투사인 勉庵 崔益鉉선생의 銅像이 서있는 七甲山 도립공원의 山莊과 國內유일하게 大雄展이 두개 있는 신라 古刹 長谷寺등을 탐방차 내려온 徐漢均會員등 본부회원 7명도 읊저버로 참석하여 盛況을 이루었다.

鄭濟鎬회원의 개회사와 국민의례, 경과 보고가 있은후 본회 李濤회장을 대리하여 참석한 文莊寅 부회장은 격려사를 검해 국립공원 운동의 세계적 추세와 지구촌의 자연보존현황등을 강연했으며, 吳判龍사무국장은 인사와 지부확장현황 및 국립공원협회운동의 重要性을 설명하고 국토의 대표적 경관지인 국립공원의 애호운동은

바로 애국운동임을 역설하고 지난 7月5日 建設部長官이 입법예고한 自然公園法 개정안을 설명하고 동개정안을 적극지지하고 있는 각지부의 열렬한 결의에 대하여 보고했다.

이날 선출된 咸日成(성심치과 의원장)지부장은 먼저 美協지부장으로 바쁜 자기시간을 희생하며 발기위원장을 맡아준 鄭漆谷회원의 노고에 감사를 보내고 「78년에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된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나 국립공원 운동을 위해 이제야 支部가 결성됨을 부끄럽게 생각하나 전회원의 노력으로 먼저설립된 他支部에 못지않게 서산해안국립공원 애호와 올바른 이용의 계몽운동에 적극나서며 육상과 해상을 합친 328.99km²에 달하는 방대한 지역인 만큼 요소마다 회원을 확장하겠다」고 굳은 포부를 피력하여 힘찬 박수를 받았다.

한편 동지부 창립의 산파역을한 鄭 발기위원장의 소속이었으며 지부창립을 성해원준 朴七星 七甲山지부장 및 동지부 회원대표 金鍾準會員이 축가로 축사를 대신했다.

만찬후 해상경관 시찰이 있었으며 이날 선임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지 부 장 : 함 일 성
 - △부지부장 : 정제호 안승환
 - △운영위원 : 정칠곡 유원춘
이복성 박충헌 한봉헌
 - △감 사 : 김영준 △사 무 장 : 유태권
- 사진 : 咸支部長



濠洲國支部 發起委員長 위촉

오는 8月21日경에 호주 시드니 지역으로 이민정착할 예정인 본회 吳昌煥회원(58. 觀光事業家)에게 본회 李濤會長이 支部發起委員長 위촉장을 수여했다. 吳위원장은 지부결성은 물론 國立公園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수시로 본會에 기증할것과 교포회원들과함께 고국의 국립공원운동을 위해 가능한한 협조를 다할것이라 하였다.